

연예인 성형설 대처법! 요즘은 "치아교정만 했어요"

기사입력 2012-03-29 09:10 최종수정 2012-09-25 16:38



살만 뺀다고 효과가 나겠어요? 얼굴형이 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형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했지만, 치아교정만 조금 했어요. 인위적인 성형이 아니다보니 자연스럽게 예쁜 얼굴을 찾은 것 같네요.

[박영희 기자]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엄격한 자기관리로 최상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덕분에 브라운관에 비친 연예인들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다.

하지만 연예인에게 자기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미지 변신이다. 같은 이미지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자칫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동안 휴식기를 가진 연예인을 보면 언제나 '성형설'이 따라다닌다. 과거와 급격하게 달라진 모습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로 성형의혹을 받는 연예인들이 치아교정이나 턱교정을 받았음을 밝히는 일이 많아졌다. 치아교정은 성형보다 치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공개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정치료가 성형과 같이 만족스러운 미적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들 '카라'의 멤버 구하라는 과거 피팅 모델 시절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했을 때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치아 교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는 그는 과거에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치아 교정 이후 전보다 세련되고 한층 밝은 느낌을 어필한다.

해외 배우로는 안젤라 베이비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유명 배우이자 모델로도 활동하는 그는 아름다운 외모로 데뷔 초부터 성형설이 끊이지 않았다. 안젤라 베이비는 어릴 적 사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외모를 이야기하며, 치아 교정만 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치아 교정은 성형을 대신한 외모 변화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지런한 치아가 가지고 오는 건강한 측면 이외에도 얼굴형의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치아 교정은 심미적인 효과만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성형수술처럼 단순히 외모적인 만족감을 위한 시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개인별 치아의 상태에 따라 교정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단기 치료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kr

- ▶ 이수근 아내 근황, 가족사진 속 행복한 모습 '눈길'
- ▶ 이승기 '강심장' 마지막 녹화서 눈물 "첫 방송 생각한다"
- ▶ '패션왕' 유리-이제훈, 농도 짙은 키스신 화제 '술김에 덤석?'
- ▶ 주병진 명 파트너 노사연·이소라 한자리에, 오묘한 관계 진실은?
- ▶ JYJ 청와대도 점령, 김윤옥 여사 "'옥탑방 왕세자' 재밌던데"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665335>
